ISSN: 2800-051X

Hankook Research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245-2호)

# 여론속의 여輿론論

## 2023 가족인식조사:
## - 기혼 가정의 가사분담 및 대소사 결정권

2023. 8. 30.

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#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
 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정기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정기지표는 국가, 사회,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.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
**운영책임** **이동한 수석연구원**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**연구진** **정한울 전문위원**

전화 | 02-3014-1057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**이소연 연구원**

전화 | 02-3014-1062
e-mail | lee.sy@hrc.co.kr

# 일러두기
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-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
# 1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 – 이상과 현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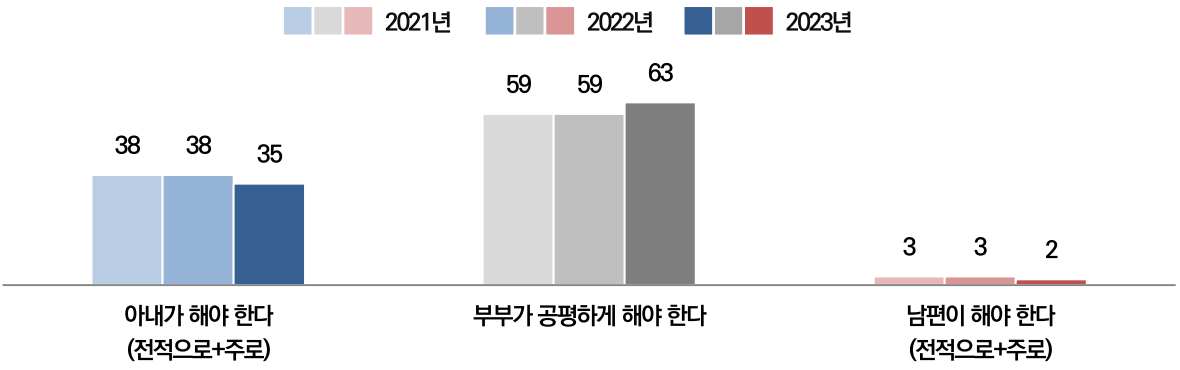
## 기혼 가정의 가사노동,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 우세

기혼 가정의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좋을지를 확인해 본 결과, 전체 응답자의 63%가 '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'고 답했다. 반면 '아내가 전적으로 혹은 주로 담당해야 한다'는 사람은 35%로 1년 전보다 3%포인트 감소했다. 기혼 남녀로만 한정해도, 54%가 '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' 고 답해, '아내가 전적으로 혹은 주로 담당해야 한다'는 의견(44%)보다 10%포인트 높다.

**기혼 가정의 가사노동,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 우세**
**기혼 남녀도 과반 이상이 '가사노동은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'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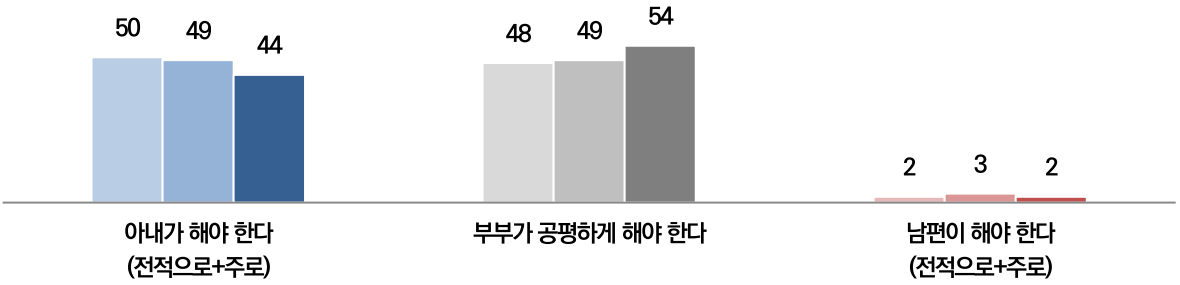
*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 – 전체*

(단위 : %)




*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 – 기혼 남녀*

(단위 : %)




질문 :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응답자 수 : 전체 – 각 조사별 1,000명(기혼남녀 2021년 594명, 2022년 582명, 2023년 588명)
조사기간: 2021. 06.17 ~ 21 // 2022. 06. 17 ~ 20 // // 2023. 06. 23 ~ 26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#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 인식, 세대차이 여전히 뚜렷해

'집안일은 여자, 바깥일은 남자' 라는 성 고정 관념이 많이 약화되어가는 추세이긴 하나, 40대를 기점으로 여전히 세대 간 차이는 크다. 50대에서는 40%가, 60세 이상에서는 52%가 '가사노동은 아내가 전적으로 혹은 주로 담당해야 한다'고 생각한다. 반면 40대에서는 70%, 30대에서는 75%, 18-29세에서는 83%가 '가사노동은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'고 생각한다. 미혼 응답자 또한 80%가 그렇게 생각한다. 반면 기혼 응답자 중에서는 54%가 '가사노동은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', 44%가 '아내라 전적으로 혹은 주로 담당해야 한다'고 인식한다.

남녀차이도 다소 확인되는데, 남녀 모두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긴 하나, 남성(아내가 담당 39%, 공평하게 분담 59%)보다는 여성(아내가 담당 31%, 공평하게 분담 68%)이 더 강하게 가사 노동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.

**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 인식, 세대차이 여전히 뚜렷해**
**2·30대, 미혼 응답자 중에서는 4명 중 3명 이상이 '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'**
**60세 이상에서는 과반이 '아내가 가사를 담당해야'**

(단위 : %)

|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… | 아내가 해야 한다 (전적으로 + 주로) | | |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 | | | 남편이 해야 한다 (전적으로 + 주로)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2022년 | 2023년 | 차이 (23년-22년) | 2022년 | 2023년 | 차이 (23년-22년) | 2022년 | 2023년 | 차이 (23년-22년) |
| **전체** | **38** | **35** | **-3%p** | **59** | **63** | **+4%p** | **3** | **2** | **-1%p** |
| **성별** | | | | | | | | | |
| 남자 | 43 | 39 | -4%p | 53 | 59 | +6%p | 4 | 2 | -2%p |
| 여자 | 34 | 31 | -3%p | 65 | 68 | +3%p | 2 | 1 | -1%p |
| **연령** | | | | | | | | | |
| 18-29세 | 11 | 17 | +6%p | 86 | 83 | -3%p | 3 | 0 | -3%p |
| 30대 | 25 | 22 | -3%p | 71 | 75 | +4%p | 4 | 3 | -1%p |
| 40대 | 37 | 28 | -9%p | 62 | 70 | +8%p | 1 | 2 | +1%p |
| 50대 | 55 | 40 | -15%p | 44 | 58 | +14%p | 1 | 2 | +1%p |
| 60세 이상 | 50 | 52 | +2%p | 46 | 46 | - | 4 | 2 | -2%p |
| **혼인상태** | | | | | | | | | |
| 미혼 | 20 | 19 | -1%p | 77 | 80 | +3%p | 3 | 1 | -2%p |
| 배우자 있음 | 49 | 44 | -5%p | 49 | 54 | +5%p | 3 | 2 | -1%p |
| 사별, 이혼 | 36 | 33 | -3%p | 62 | 63 | +1%p | 1 | 4 | +3%p |

**질문 :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**

응답자 수 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: 2021. 06.17 ~ 21 // 2022. 06. 17 ~ 20 // // 2023. 06. 23 ~ 2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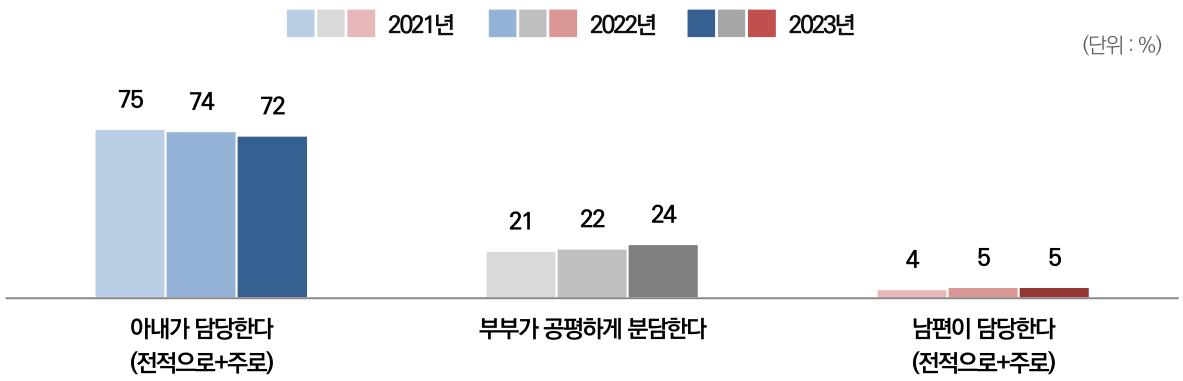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# 기혼 가정의 실제 가사분담, '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주로 담당한다' 72%

인식상으로는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, 현실은 다르다. 기혼 남녀 중 72%가 '실제로는 가사를 아내가 전적으로, 혹은 주로 담당한다'고 답했다. 실제로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는 사람은 24%이다. 남성(61%)보다는 여성(81%)이,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이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사람이 많다(60세 이상 79%).

2·30대에서는 아내가 가사를 담당한다는 응답이 50%,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42%로 큰 차이가 없다. 이는 향후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는 가정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.

## 기혼 가정의 실제 가사분담, '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주로 담당한다' 72%




| (기혼 가정) 실제 가사 분담을… | 아내가 담당한다 (전적으로 + 주로) | | | 부부가 공평하게 담당한다 | | | 남편이 담당한다 (전적으로 + 주로)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2022년 | 2023년 | 차이 (23년-22년) | 2022년 | 2023년 | 차이 (23년-22년) | 2022년 | 2023년 | 차이 (23년-22년) |
| 전체 | 74 | 72 | -2%p | 22 | 24 | +2%p | 5 | 5 | - |
| 성별 | | | | | | | | | |
| 남자 | 64 | 61 | -3%p | 28 | 31 | 3%p | 8 | 7 | -1%p |
| 여자 | 82 | 81 | -1%p | 16 | 16 | - | 2 | 3 | +1%p |
| 연령 | | | | | | | | | |
| 18-39세 | 53 | 50 | -3%p | 39 | 42 | +3%p | 7 | 9 | +2%p |
| 40대 | 63 | 67 | +4%p | 33 | 28 | -5%p | 4 | 5 | +1%p |
| 50대 | 77 | 75 | -2%p | 21 | 20 | -1%p | 3 | 4 | +1%p |
| 60세 이상 | 83 | 79 | -4%p | 11 | 17 | +6%p | 6 | 4 | -2%p |

**질문 : 실제 귀댁에서는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?**

비고: 2021년 조사는 기혼자 중 배우자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

응답자 수 : 2021년 506명, 2022년 582명, 2023년 588명

조사기간: 2021. 06.17 ~ 21 // 2022. 06. 17 ~ 20 // // 2023. 06. 23 ~ 2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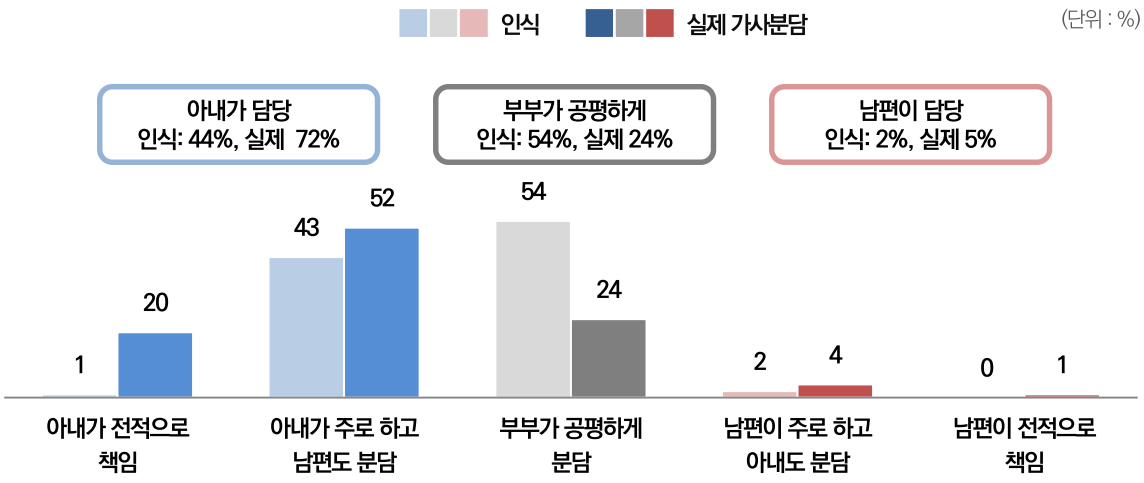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# 기혼 남녀의 가사 분담 인식과 현실의 격차, 전 세대에 걸쳐서 확인되

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전 세대에서 확인된다.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기혼남녀 중에서는 과반 이상이 '가사노동은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'고 생각하고, 특히 18-39세와 40대 기혼남녀는 3명 중 2명(67%)가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비율은 각각 42%(18-39세)와 28%(40대)로 그 격차가 크다. 50대 기혼남녀 또한 실제로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응답은 20%로, 인식(57%)과 37%포인트 차이가 난다.

반면 '아내가 가사노동을 담당해야 한다'는 인식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절반 이하이나, 현실에서는 아내가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최소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.

## 기혼 남녀의 가사 분담 인식과 현실의 격차, 전 세대에 걸쳐서 확인돼




(단위 : %)

| | 사례수 (명) | 아내가 (전적으로 + 주로) 인식 | 실제 | 차이 (실제-인식) | 부부가 공평하게 인식 | 실제 | 차이 (실제-인식) | 남편이 (전적으로 + 주로) 인식 | 실제 | 차이 (실제-인식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체 | (588) | 44 | 72 | +28%p | 54 | 24 | -30%p | 2 | 5 | +3%p |
| 성별 | | | | | | | | | | |
| 남자 | (284) | 47 | 61 | +14%p | 51 | 31 | -20%p | 3 | 7 | +4%p |
| 여자 | (304) | 41 | 81 | +40%p | 58 | 16 | -42%p | 1 | 3 | +2%p |
| 연령 | | | | | | | | | | |
| 18-39세 | (78) | 30 | 50 | +20%p | 67 | 42 | -25%p | 3 | 9 | +6%p |
| 40대 | (125) | 31 | 67 | +36%p | 67 | 28 | -39%p | 2 | 5 | +3%p |
| 50대 | (142) | 42 | 75 | +33%p | 57 | 20 | -37%p | 1 | 4 | +3%p |
| 60세 이상 | (243) | 56 | 79 | +23%p | 42 | 17 | -25%p | 2 | 4 | +2%p |

질문 : 인식 -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// 실제 - 실제 귀댁에서는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?

응답자 수 :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588명

조사기간: 2023. 06. 23 ~ 26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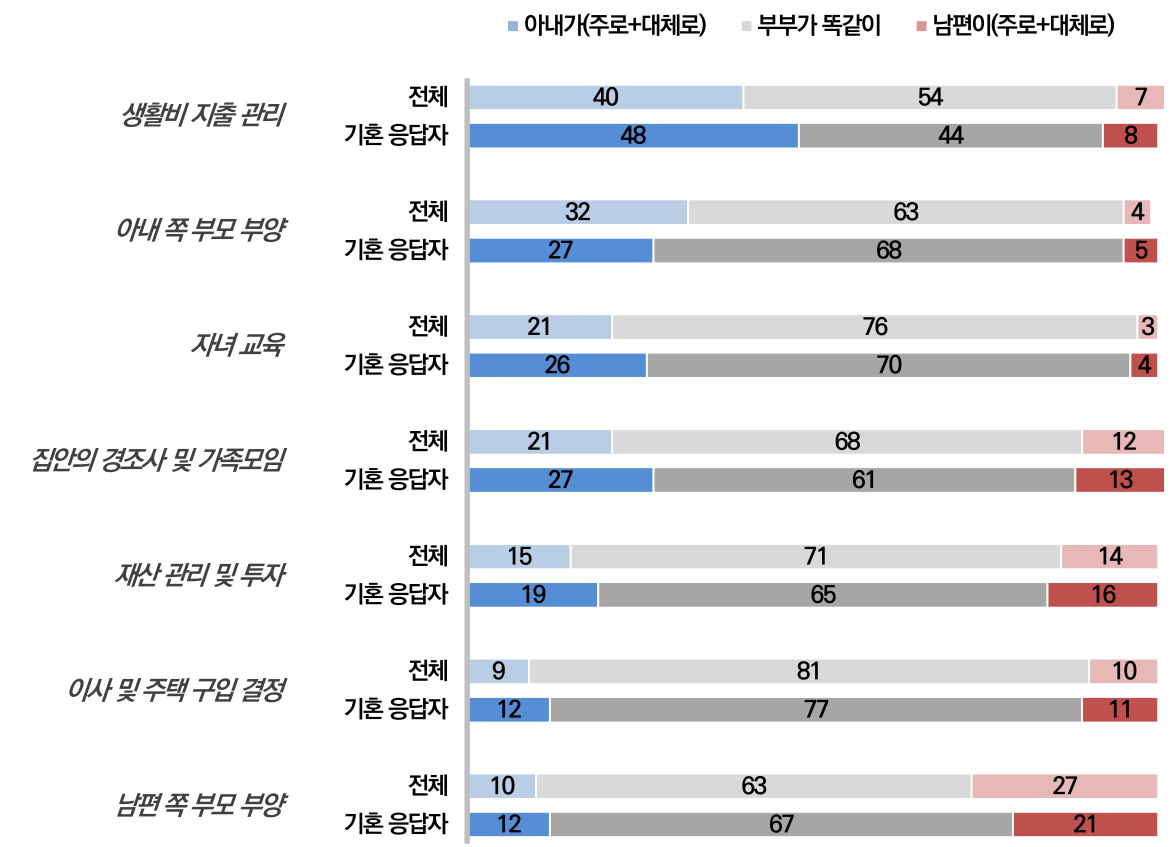
# 2 집안 주요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 – 이상과 현실

## 집안 주요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권, 부부가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인식 우세

가사업무 외에, 집안의 주요 대소사에 대해서도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. 생활비 지출 관리(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 가져야 54%)를 포함해 아내 쪽 부모 부양(63%), 남편 쪽 부모 부양(63%), 집안의 경조사 및 가족모임(68%), 재산 관리 및 투자(71%), 자녀 교육(76%),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(81%) 모두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. 기혼 남녀로만 한정해도, 생활비 지출에 대해서만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을 뿐(48%),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최소 10명 중 6명 이상이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.

**집안 주요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권, 부부가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인식 우세**

(단위 : %)




질문 :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자 수 : 전체 1,000명, 기혼 응답자 588명

조사기간: 2023. 06. 23 ~ 26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## 실제로는? 모든 항목에서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비율 감소
## 자녀 교육과 생활비 지출 관리, 아내에게 의사결정권 있다 과반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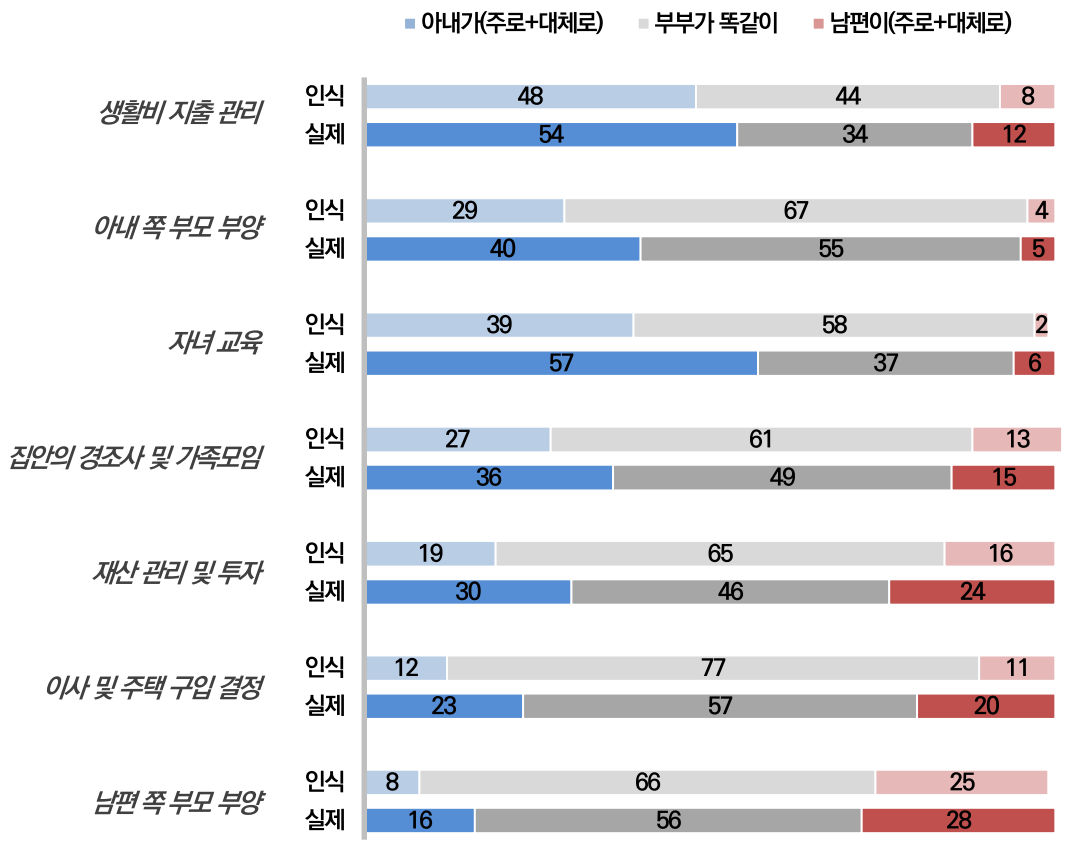
앞서,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이상과 현실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. 집안 대소사에서의 의사결정권 또한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.

기혼남녀에게 질문한 결과, 생활비 지출 관리에서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4%였다. 반면 실제로 부부가 똑같이 생활비 지출 관리 부분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34%로 10%포인트가 낮다. 반면 아내가 주로 혹은 대체로 의사결정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54%로 과반 이상이다.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기혼남녀의 58%가 부부가 동등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, 실제로는 아내 쪽에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응답이 57%로 과반을 넘는다. 기혼 가정 중 아내 쪽에 생활비 지출과 자녀 교육 의사결정권이 있는 집이 절반 이상인 것이다.

재산 관리 및 투자, 부모 부양,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, 집안 경조사 및 가족모임 등 다른 항목에서는 실제로도 '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'는 응답이 다수이다. 다만 '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가져야 한다'는 인식보다는 모두 낮다. 우리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와, 실제 행태와의 괴리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.

**실제로는? 모든 항목에서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비율 감소**
**생활비 지출 관리와 자녀 교육은 아내에게 의사결정권 있다 과반 이상**

(단위 : %)




질문 : 인식 –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실제 – 귀 댁은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실제로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?

응답자 수 : 자녀 교육 – 배우자 있고, 영유아 혹은 초중고 자녀 있는 응답자 203명 남편 쪽 부모 부양 – 배우자 있고, 남편 쪽 부모님 있는 응답자 338명
아내 쪽 부모 부양 – 배우자 있고, 아내 쪽 부모님 있는 응답자 374명 그 외 – 배우자 있는 응답자 588명

조사기간: 2023. 06. 23 ~ 26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# 조사개요
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모집단 | •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|
| 표집틀 | •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(23년 6월 기준 전국 88만여 명) |
| 표집방법 | 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|
| 표본크기 | • 1,000명 |
| 표본오차 | •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±3.1%p |
| 조사방법 | • 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 |
| 가중치 부여방식 | • 지역별,성별,연령별 가중치 부여(셀가중)<br>(2023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 |
| 응답율 | • 조사요청 7,411명, 조사참여 1,245명, 조사완료 1,000명<br>(요청대비 13.5%, 참여대비 80.3%) |
| 조사일시 | • 2023년 6월 23일 ~ 6월 26일 |
| 조사기관 | • 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 |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# 여론속의 여輿론論

Hankook Research